

백제 치미 鷓尾

윤유희, 106호 백제실 18:00~18:30

치미鷓尾는 기와 건물 용마루의 좌우 끝에 올라가는 대형 기와로 용마루기와라고도 합니다. 치미는 술개[鷓]의 꼬리[尾]깃을 뜻하며, 활짝 펼쳐진 모습으로 건물에 웅장함을 더하는 장식기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치미는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었으며, 시대 변천에 따라 통일신라에서는 누미樓尾, 고려시대에는 치문鷓吻, 조선시대에는 취두鷓頭처럼 다르게 불리며 사용되었지만 새를 매개로 하늘과 소통함으로써 건물에 상서로운 기운이 깃들게 하고 사악한 기운을 멀리하고자 하는 상징적 의미는 시대를 넘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물을 내뿜는 어룡魚龍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백제 치미는 현재 부여와 익산 지역의 17개 유적에서 확인되며, 복원되어 전체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은 부여 부소산사지 2점, 왕흥사지 1점, 익산 미륵사지 1점에 불과하지요. 그 이유는 치미가 한 건물에 단 2점만 올라가며, 모든 건물에 사용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래 크기에 비해 잘게 부서진 상태로 출토되기 때문에 파편 수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온전한 복원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은 조각이라도 집요하게 파고드는 고고학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백제 치미의 특징을 어느 정도는 밝혀낼 수 있습니다.

치미를 제대로 관찰하려면 치미를 한 마리의 새라고 생각하고 나누어 볼 수 있어야 하겠지요. 먼저 뒤로 치켜 올라간 부분을 날개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날개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머리고, 뒤의 편평한 부분은 배입니다. 뒤로 말려 올라간 끝부분이 꼬리이고, 꼬리와 머리를 잇는 선이 등이며, 등의 좌우는 몸통입니다. 몸통은 세로띠를 경계로 깃털과 구분합니다. 이제부터는 치미의 각 부분을 관찰하면서 백제 치미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몸통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치미를 가로로 갈라놓은 선입니다. 아마도 가마에 넣고 빼기 쉽고, 치미를 구우면서 실패할 확률을 낮추기 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치미가 지붕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 않았을까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치미가 올라가는 자리에는 나무기둥을 세워 고정시키는데 이것을 심목心木이라 합니다. 또한 보조 장치로 몸통에 구멍을 내고 여기에 쇠붙이를 걸거나 쇠줄로 묶어서 고정시키기도 합니다. 몸통은 치미의 가장 넓은 면이기 때문에 화려하게

장식을 하게 됩니다. 백제 치미는 몸통에 마치 부챗살처럼 계단을 만들어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느낌을 표현하는데, 이것이 신라 치미와 다른 특징입니다. 신라 치미는 보주寶珠나 풀꽃[草花], 넝쿨[唐草]무늬를 사용했습니다. 날개는 몸통의 표현처럼 단으로 나타낸 경우가 많으며,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백제 치미 중에는 실제 새의 깃털처럼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등은 단면이 부드러운 곡선의 반원형으로 만드는데, 용마루 상단에 수키와를 얹어 놓은 선과 맞추기 위함입니다. 꼬리는 좌우의 날개가 맞물려 등의 곡선이 마무리되는 부분이므로 막대를 자른 형태로 처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는 용마루 상부에 쌓아올린 적새[積瓦]와 맞닿는 부분이므로 단면은 편평하지만 가로기둥[橫木]에 끼워 지붕에 단단히 고정시킬 수 있도록 둥글거나 네모난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배는 용마루 상단의 수키와 위에 올리기 위해 하부에 반원형 홈을 파놓은 경우가 많으며, 나머지 넓은 공간을 연꽃무늬 등으로 장식합니다. 통일신라 치미는 머리에서 뚫어 놓은 구멍과 이어지도록 배 부분에 구멍을 뚫기도 합니다.

그러면 치미는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을까요? 크기가 워낙 크다보니 일반 기와와는 다른 특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겠지요. 전시된 왕흥사지 치미를 함께 관찰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몸통은 점토 띠를 위로 쌓아올리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독널[甕棺] 같은 대형 토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과 같지요. 날개는 몸통과 따로 만들어 점토를 덧붙였고, 완성된 몸통 중앙에는 세로로 반원형 점토 띠를 붙여 등을 완성하였습니다. 세로 띠 안에는 대롱으로 찍거나 구멍을 뚫고, 뾰족한 도구로 선을 긋거나 문양을 덧붙여 장식하였습니다. 문양이 들어갈 자리에는 미리 밑그림을 그리거나 흙집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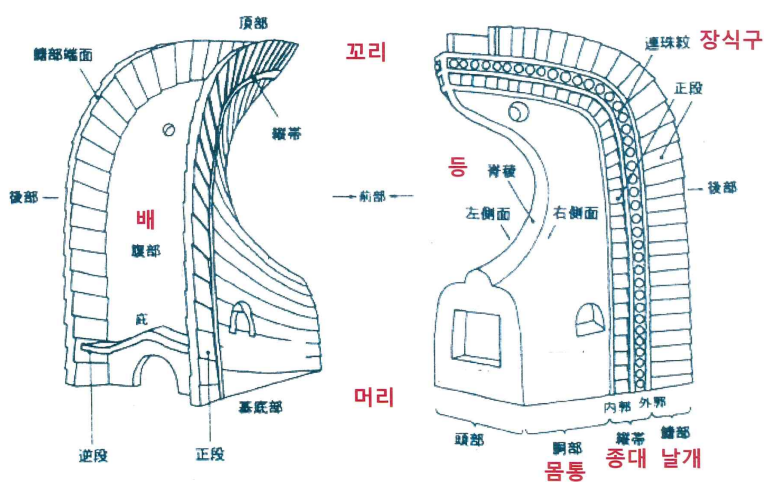


그림1. 치미 세부 명칭



그림2. 치미 내부 모습

제692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2년 9월 21일)

당나라 묘장 미술과 복희여와도

이정은, 307호 중앙아시아실 18:00~18:30

투루판의 아스타나 고분군은 이 지역을 통치하였던 한인 식민왕조 국씨고창국(502-640)의 당나라 지배기에 조성된 귀족공동묘지입니다. 당나라의 영향이 묘장 미술 곳곳에서 나타나, 상류층과의 문화 교류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묘장 출토품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죽은 자의 이름과 관직, 사망일자 등을 한자로 간략하게 기술한 묘표墓表가 있습니다. 국씨고창왕국시대의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관인 계층의 신분적 위상 등 당시 사회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상의 동물로 몸체는 동물이고 얼굴은 사람의 형상을 한 것과 몸과 얼굴 모두 동물의 형상을 한 진묘수 한 쌍이 묘실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주제인 중국 고대의 천지 창조 신화에 등장하는 복희여와도는 투루판 지역에서 6세기에서부터 8세기 중반까지 많이 만들어져 주로 무덤 널방의 천장에 설치되었습니다. 시신과 각종 부장품을 묻는 무덤 내부를 천상 세계와 연결해 주는 장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창조신이 서로 몸을 꼬고 있는 모습으로 우주와 만물이 생겨나는 것을 상징하는 이 그림에는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 다음 세상에서 풍요롭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희여와도는 이미 한대漢代의 석실묘의 화상석에도 나타나는 매우 중국적인 모티프이지만, 이를 독립된 인물화로서 중앙아시아적인 기법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문화 변용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1. 복희와 여와 그림



그림2. 구슬무늬 명기와 명기 받침

해동성국 발해의 역사와 문화

고영민, 112호 발해실 19:00~19:30

발해(698-926)는 고구려가 멸망하고 30년이 흐른 뒤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이 연합하여 동모산 일대에 터전을 잡고 대조영이 건국하였습니다(698). 비슷한 시기 남쪽의 신라가 있었기 때문에 통일신라시대가 아닌 ‘남북국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15대 229년간 존속했던 발해는 특히 2대 무왕武王(719-737)과 3대 문왕文王(737-793)을 거치면서 급속도로 국력을 팽창시켜 나갔습니다. 3대 문왕 때는 영토를 확장하고 국력을 크게 신장하였습니다. 특히 문왕은 57년간 발해를 통치하며 시호가 알려주듯이 문치를 바탕으로 국내 문물제도를 정비하여 발해의 기틀을 완성시켰습니다.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구려왕들처럼 천손을 지칭하고 황상이나 조고와 같은 황제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불교의 이상군주인 전륜성왕이라 호칭하기도 했습니다. 10대 선왕宣王(818-830)이 즉위하면서 발해는 중흥기를 맞게 됩니다. 선왕은 계속된 내분을 수습하고, 대외 정복활동을 벌여 북쪽으로 여러 말갈부족을 정벌하고 5경 15부 62주의 행정구역을 정비하였습니다. 발해의 영역은 고구려의 1.5~2배 정도였으며 한반도의 3배에 해당 될 만큼 컸으며, 중국에서도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는 의미로 ‘해동성국’이라 할 만큼 문화적 역량 또한 대단하였습니다.

고구려 유민이 세운 발해는 그 문화도 계승했습니다. 지배층의 돌방무덤과 온돌과 같은 난방시설, 물레로 모양을 만들고 높은 온도에서 구운 회색토기, 연꽃무늬 기와는 모두 고구려 계통입니다. 관음보살상이나 소조불에서 볼 수 있는 강건한 인상의 얼굴 표현은 고구려 불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옛 고구려 책성柵城 지역에서 출토된 <두 부처가 나란히 앉은 불상>은 고구려 때 유행했던 법화 신앙 전통이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림1. 두 부처가 나란히 앉은 불상

어진 속 복식 표현과 해석

박승원, 120호 대한제국실 19:00~19:30

어진御眞은 왕의 초상화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어진이 처음 제작된 시기는 확단하기 어렵지만 삼국시대에 왕의 초상과 관련된 기록이 보이며 통일신라를 지나 고려, 조선시대에 활발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어진 제작은 군왕이 생존했을 때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는 것, 승하한 뒤에 생전의 모습을 기억하여 그리는 것, 이미 그려진 어진이 훼손되었거나 모사가 필요하여 그리는 것 등의 종류로 나뉩니다.¹⁾ 어진을 통해 재위 시기의 복식과 착용 모습 등을 알 수 있는데, 현전하는 직물이나 복식 문화재가 적은 우리나라에서 왕실의 복식사적인 궁금증을 풀어주는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실에는 태조太祖(재위:1392-1398), 영조英祖(재위:1724-1776), 고종高宗(재위:1863-1907) 이렇게 국왕 세 분의 어진을 모시고 있습니다. 어진에 보이는 국왕의 복색을 통해 당시에 왕실 복식의 특징들을 가늠해 보면 먼저 머리에 쓰는 관모는 전체적인 외형과 크기, 색상, 뿔[角]의 모양, 장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몸에 입은 의복은 둥근 깃이 달려 있는 포袍인 것은 동일하지만 의복의 색상과 크기, 깃의 둥근 모습, 사용된 직물 무늬는 동일하나 표현이 다릅니다. 의복에 달린 보補(왕·왕세자의 곤룡포에 장식하는 둥근 모양 흉배)의 크기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직조인지 자수인지의 장식 방법도 자세히 보니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허리에 찬 옥대玉帶의 모양, 신고 있는 신의 모양 등 얼굴 생김새의 다름만큼이나 비교하면서 시기의 변화를 살펴볼 부분이 많습니다.



그림1. 태조 어진



그림2. 영조 어진



그림3. 고종 어진

1) 조선미(2011), 한국 초상화의 세계, <초상화의 비밀> 특별기고, 국립중앙박물관(서울: 그래픽네트), pp.241-243.